



韓·리비아 에너지세미나

- 리비아에 다녀와서 -

이 글은 李昌健博士가 1988年11月 트리폴리에서 開催된 韓·리비아 에너지세미나에 韓國代表團으로 參加한뒤, 세미나 內容과 리비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全般의 人 事項을 소개한 것이다. (編輯者注)

李 昌 健

(韓國에너지研究所)
(原子力研修院長)

1. 概 要

리비아는 地中海남쪽의 아프리카대륙 북단에 자리잡고 있으나 文化的, 人種的 그리고 종교적으로 中東國家로 자처하고 있다. 1980년도 UN통계에 의하면 인구가 298만이라고 되어있었고 현재는 360만이라 하나 공식석상에서는 400만이라 하고 私席에서는 300만이라 한다. 2000년도까지 600만의 인구를 가지는 것이 목표이지만 현재의 연간 인구 증가율 3%로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하다. 이웃나라인 알제리의 인구증가율이 6%이고 또 긴 국경선을 接하고 있는 이집트의 인구가 4,300만이므로 리비아는 人口數의 열세를 크나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원래는 이 지역에 베르베르라는 인종이 살고 있었으나, 아랍인들의 西進으로 지금은 거의 混血이 되어 이 혼혈인이 전국민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176만km²로서 한반도의 8배, 남한의 17배에 달한다. 농경지는 해안가와 내륙지방의 오아시스를 합해도 전국토의 1.4%밖에 안되고 牧草地가 5.1% 그리고 森林이 0.28%뿐이어서 居住 가능한 면적은 결국 나라전체의 6.8%인 12만km²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의 북한 넓이에 지나지 않는 셈이다. 나머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뜨거운 沙漠지대이고 특히 남쪽지역의 사

하라 沙漠은 햇빛과 熱砂와 폭풍으로 유목민은 물론 隊商조차도 가까이하지않는 험악한 곳이다. 즉 하루밤 사이에 모래산이 이동하는 무서운 지대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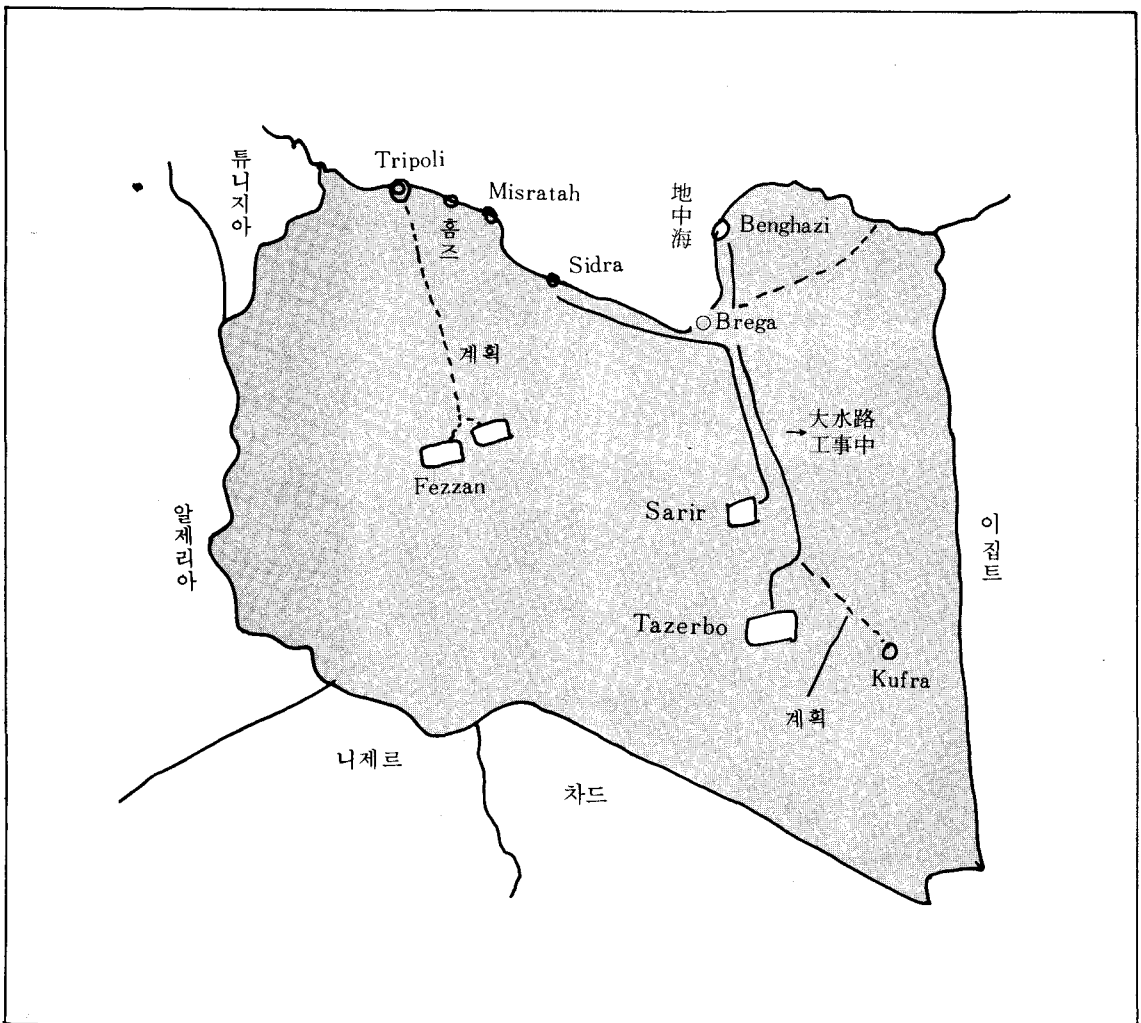
리비아에는 옛부터 베르베르遊牧人이 살고 있었으나 기원전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페키니아人, 카르타고人, 그리스人, 로마人들이 쳐들어와 식민지로 삼고 있었고, 7世紀 이래로 아랍인들이 西進하면서부터 아랍文化圈으로 휩쓸리게 되었다. 현재의 리비아人은 베르베르 原住民과 아랍인의 混血族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1911년부터 1951년까지는 이탈리아의 통치를 받았고 그후 69년까지 리비아聯合王國을 이루고 있었다.

한때 리비아王國의 청년장교들이 영국軍官학교에 훈련받으러 갔을 때 카지노에서 400만\$를 잃은 사나이의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장본인은 리비아王國의 정치고문이라는 것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비아 장교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리비아에서 긁어 모았길래 그런 巨額을 잃고도 끄덕도하지 않을가 하며 울분을 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때 王政을 뒤엎을 궁리를 하게된 주동인물이 카다피(Qathafi)大尉였다. 그들은 귀국하여 국왕의 不在中인 틈을 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여 군사정부를 수립하였는데 그것이 오늘의 사회주의인민 리비아共和國(Socialist Peoples Libyan Arab Jamahiriya)의 기틀이다.

그때가 1969년이었고 카다피대위가 27세였을 때의 일이다. 이 國號는 1977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Jamahiriya라 함은 인민공동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독재국가 특유의 통치수단인지는 몰라도 어디를 가나 제국주의자들을 저주하는 표어를 보게된다. 우리의 3.1절, 8.15에 해당하는 기념일로 이탈리아 축출기념일, 미제국주의자에의 抗爭紀念日 또는 지난날 외국 석유회사직원 자녀들의 학교였던 Oil

School도 “미국제국주의자에게 희생된 순교자 자녀 학교” 따위로 改名하였다. 이렇듯 西歐국가를 저주하고 매도하면서도 elite들은 서방선진국 一流校 출신임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눈치였다. 논문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중에는 전직 London대학 교수, Harvard大 經濟學 박사, MIT化學工學 박사 등이 여럿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이나라를 운영하는듯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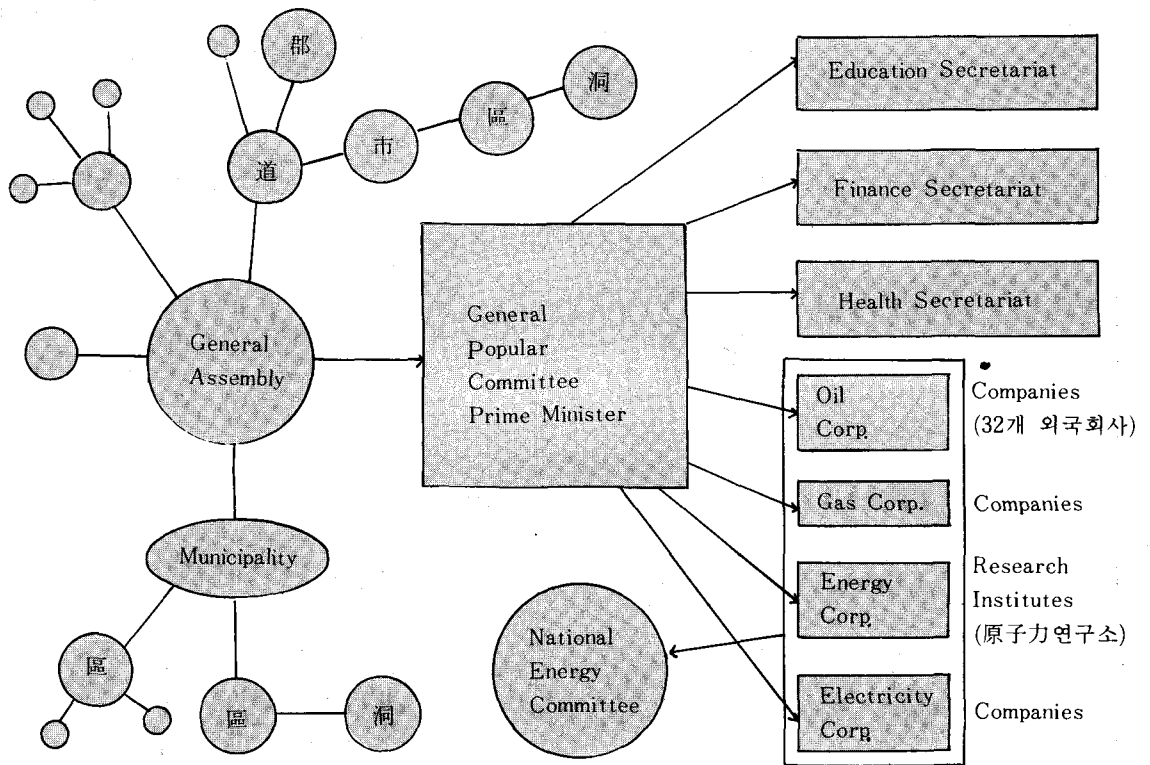


〈그림 1〉 리비아의 大水路

2. Libya의 政府形態

리비아는 Qathafi 執權이래 특수한 행정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각 직장과 마을마다 조직된 自治會에서는 지역문제와 국가大事

를 논하고 여기에서 선출된 대표가 한단계 위의 自治단체의 위원이 되고 이렇게 하여 국가최고의 결기관인 General Assembly(GA)가 구성된다. GA는 마치 자유세계의 國會에 해당된다.



〈그림 2〉 Libya의 政府組織形態

국회에서는 內閣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General Popular Committee를 임명하며 그 Committee의 長이 首相이고 그 밑에 여러개의 Secretariat를 구성한다. 문교行政을 담당하는 부서는 Education Secretariat, 保健분야는 Health Secretariat라는 식이다. 과거에는 에너지문제, 石油 및 電力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Secretariat라고 불렀으나 얼마전 그것을 고쳐 Oil Corporation, Energy Corporation, Electricity Corporation 등으로 개편하였으며 그 長은 長官級이고 Secretary라고 불리운다. 原子力, 태양열, 風力 및 Renewables의 연구개발을 전담

하는 Energy Corporation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처에 해당한다. 그 長官인 Dr. Elmadani Nuri가 Oil+Energy+Gas Electricity Corporations으로 구성된 National Energy Committee의 Vice President (President는 首相)직에 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즉 Libya의 收入의 태반을 차지하는 Oil and Gas 업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나라 최고統治者의 측근임은 물론 權力구조의 核心요원인 elite中的 elite로 보였다. 電力회사나 Gas 회사 등은 각각의 Corporation 밑에 붙어 있다. 그래서 32개의 외국 석유회사들은 Oil Corporation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한국회사가 이 나라에 진출하려면 우선 Corporation 밑의 기업체 長과 만난 다음 Courtesy Call로 Corporation 우두머리인 長官과 접촉해야 하나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上位일수록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장관급과 lobby 활동을 벌이는 것이 捷徑일 것이다. 국회나 行政府의 어디에도 Qathafi는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 영국記者가 Qathafi에게, 귀하는 Libya의 首班이 아닌가고 질문했을 때 그는 국회 議長과 내각 首班은 엄연히 선출되어 있고 자기는 국민의 지도자(Leader) 일뿐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Leader는 Great Leader이고 국회와 행정부 심지어는 法위에 君臨하는 唯一無二의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다.

3. Libya 出入國 절차

리비아에 입국하려면 아랍語로 적혀있는 신청서류에 기입해야 하므로 부득이 돈주고 번역해야 한다. 이것은 리비아로 입국하는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고 세관신청 서류도 마찬가지다.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서류와 아랍어原文 對照는 아라비아數字로 적혀있는 번호를 맞춰보면 안다. 그래서 신청자는 영문내용을 읽어보고 아랍어서류에 기재하면 된다. 이 나라에서는 출국을 위한 Visa도 꼭 받아야 하며 그것은 입국즉시 해 놓아야 한다. 部族국가의 父系사회이어서 그런지 Visa신청서와 입국신청서란에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써넣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모든 일을 一方的으로 처리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입국할 때는 1인당 미화 500\$을 무조건 바꾸어야 하고 그 기록을 항시 소지하고 있다가 출국시 쓴돈과 맞추어 보아 액수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특히 그 나라에 갖고 들어간 모든 外貨의 사용 명세서와 行方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넥타이 매고 입국하면 푸대접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를 우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넥타이맨 White - Collar계층을 심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장관급이

비행장에서 옷을 훌랑 벗기우고 조사 받았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고 옷잘입은 장관수행원이 가방을 철저히 조사받은 것을 보았다고도 한다. 하여간 우리를 VIP로 예우한 이 나라 외무부 儀典官도 넥타이 매지 않은 옷차림이었다. 술과 옷이 무릎위에 올라오는 여자 사진이 있는 잡지를 갖고 입국하는 일은 禁物이다.

4. Libya의 國防

리비아는 막대한 petro - dollar로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각종 무기를 도입하여 국방에 임하고 있다. 人口는 360만인데 상비군이 15만이나 되고, 즉시 동원가능한 또다른 예비군이 15만명이 있다는 것이다. 여학생일지라도 대학생은 군복을 입고 매주 몇시간씩 훈련받고 있었다. 군대의 막사는 호텔못지 않게 훌륭하다. 민간인의 생각이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가 만난 이 나라 지도급 인사들은 한결같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저주하였다.

Tank는 2900대, MIG-23을 위시한 최신행 전폭기, Missile, 군함, 電子장비 등 모두 高價品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했다. 또 하루저녁은 지도급 인사가 우리와 함께 몰래 술마시며 흥금을 털어 놓고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현재 리비아는 아랍 게릴라, PLO, 中南美와 아프리카 인민해방전선 鬪士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느라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북한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현재 Benghazi 空軍基地에서는 북한 교관들이 전폭기 조종사들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87년 가을 미국 전투폭격기에게 폭격당한 건물들은 수리하지 않고 관광 Course로 삼아 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점심먹고 회의장으로 갈때마다 우리를 폭격받은 다른 건물로 안내했으며 심지어는 우리들의 운전기사집도 파괴되었다면서 보여줬는데 그것은 최고급 호화주택이었다.

하마터면 미국이 프랑스 대사관까지 폭격할 뻔 했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건물은 바로 이나라의 국군보안사령부 본부라는 것이고, 폭격당한 시내의 호화주택들도 “지도자”의 安家(Safe House)였다고 한다. 또 Benghazi로 가는 고속도로 옆에 流彈이

떨어졌다고 하나 사실은 그것이 Tripoli와 Benghazi를 잇는 지하통신線路가 매설된 곳이라 한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미국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듯 하였다. 그래서 미국으로 부터 공격받은 다음 부터는 외국과의 전화, Telex, Facsimile 등 직접 통신수단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또 지도자 Qathafi와의 면담은 시간과 장소약속없이 그냥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였다가 밤중에 보내는 검은 리무진을 타고 가서 어딘지도 모르는 장소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나라 국방의 취약점은 넓은 국토에 비해 人口가 적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외국인이라도 그냥 불법으로 징집해서 Truck 운전같은 일을 시켜 물자 수송에도 동원했다는 것이다.

5. 한국-리비아 共同세미나

리비아는 제1차로 소련과, 제2차로 이탈리아와 에너지에 관한 공동세미나를 했고 제3차로는 우리를 초청한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論文의 질은 그리 좋지 않았으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역력하였고 우리측이 제출한 논문에 그들은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개최식편 에너지長官인 Elmadani 박사가 환영사를 했고 그후에 계속된 제1분과 에션 座長役까지 맡았으며 다음날 우리들은 乘馬 club으로 만찬초대까지 했다. 그는 회의 도중 우리측 대표중 원자력전문가를 개별적으로 불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제반문제를 깊이있게 물었다. 또 본인이 原子力人力開發 論文을 발표한 뒤 리비아측 몇사람이 찾아와 核心 기술이양문제를 묻더니 약5년간 와서 일해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원자력개발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근처에서 사진만 찍어도 1년 징역에 처하는 Tajura 原子力研究所도 구경시켜 줄 정도였다. 한때는 CANDU型 重水爐를 선택에 적재하여 海水淡水化를 추진하려다가 좌절한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Tajura 原子力研究所에는 2MW급 소련제 原子爐를 비롯하여 Tokamak, Manipulator 2대씩 달린 8개의 放射化學研究室, 廢棄物연구실 등 31개의

대형건물에 1,15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몇개의 시설은 세계최고급의 장비였으나 사용빈도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우리에게 原子力人力訓練, 특히 爐心設計, 원자로제어, System engineering, 그리고 電子機器 보수분야의 訓練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6. Brega 石油基地

한국참가자 一行은 우리를 위해 마련해준 雙發 비행기를 타고 Tripoli 東쪽(Bengazi 西쪽 240km) 해안의 Brega 석유기지를 방문하였다. Brega地域의 年間 降雨量은 결코 200mm를 넘는 경우가 없어 황량한 沙漠지대이지만 30年前(1958年) 石油를 발견하여 61년부터 生産輸出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곳이다. 이곳 남쪽 170km부근 까지에는 2時間이면 도달할 수 있는 잘 鋪裝된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고, 그 인근에 지하 5,000 feet, 5,500', 9,000', 12,000 feet에서 퍼올리는 石油지대가 있어서 거기서 채굴한 石油를 이곳 Brega까지 20 inch Pipeline으로 수송하고 있다.

Libya정부는 일정지역을 외국 石油회사에 몇10年間 賃借(이들은 Concession이라 함)해 주고 각 석유회사들이 자기 資本과 裝備와 人力을 동원하여 探查, 채굴, 生産, 저장, 수송하여 Brega까지 끌어오는데 어떤 會社는 原油를 정제하여 일정액을 Libyan Oil Corporation에 지불하고 輸出하기도 하고 또 어떤 會社는 현지에서 그중 일부로 石油化學製品을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 이곳에서의 1日 石油生産量은 100万 Barrel이고 LPG는 1,500만 gallon이다. LNG는 現代建設이 施工한 Misratah 製鐵所의 火力發電所用 燃料로 공급하게 된다. LNG는 석유회사가 供給하고 발전소는 現代建設이 지었는데 600km에 이르는 LNG 수송 Pipeline 건설을 맡은 소련建設業體가 계약기간 보다 竣工日字를 1~2年 늦추는 바람에 LNG 수송이 안되어 現代建設측은 발전소를 지어놓고도 Commissioning을 못하는 형편인데도 계속 人力을 현장에 배치해 놓아야 하니 經濟的 損失이 크다.

이 기지에는 31개 회사 직원 2,644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 1,933名은 리비아인이고 711名은 외

국사람이다(주로 유럽人). 주거시설로는 600家口의 단독주택과 1,600名의 獨身을 위한 trailer가 있다. 支援施設은 Supermarket, 병원, 각급學校, 오락시설이 달린 Club House, 영화관, bowling장, 運動施設, 農場 및 비행장이 있고 교통수단으로 F-28 Jet비행기, 2대의 쌍발비행기, 버스와 小型차량 등을 갖추고 있다. 야채, 羊고기, 그리고 牛肉은 현지에서 자급자족하고 있다.

7. 大水路事業

GMRP (Great Man-Made River Project)

리비아의 큰 난점은 물부족이다.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생활도, 산업발전도, 농업도, 기타 모든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물을 얻기 위해 이들은 옛부터 우물을 팠다. 비는 주로 해안지대에 그것도 겨울에만 오는데 石油달러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해안가에 각종 施設物이 건설되자 우물의 水位가 낮아지게 되었고 주민들은 물을 퍼올리기 위해 우물을 競爭적으로 더욱 깊이 팠다. 그러자 바닷물이 浸透하기 시작하였고 海水汚染은 해마다 內陸으로 이동하게 되어 生態界를 위협하게 되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識者들의 견해이고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물을 얻는 方法으로는 우물파기 이외에 海水淡水化和 남쪽 1,700km에 位置한 Sarir 帶水帶와 그 남쪽의 Tazerbo 및 Kufra와 西쪽의 Fezzan의 地下水를 끌어 오는 것이다. 해수담수화는 재래식 方法의 蒸發法, 太陽熱을 利用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들은 현재 널리 使用하고 있는 化石燃料를 땀값으로 하는 蒸溜法 보다 原子力를 利用하는 해수담수화에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다. Libya의 太陽熱研究所의 研究開發도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남쪽 1,700km지점의 地下水를 끌어오려면 導管設置가 必須인데 그것이 우리 東亞建設産業이 담당하고 있는 GMRP이다.

최근에는 150m 이상의 깊이를 파야 물이 나오며 그것도 海岸지대에선 잔물이 나오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住民과 施設을 가급적 內陸쪽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大宇建設本부가 海岸부

근의 사무실을 이곳 政府의 권유로 몇 10km 안쪽으로 옮겨간 것도 물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水質이 나빠 그 물을 오래 마시면 齒牙가 빠지고 白髮이 되기도 한다. 좋은 飲料水 값은 原油값의 7배에 이른다. 우물을 파다가 석유가 나오면 국가소유가 되나 물이 나오면 자기들이 마시게 되니 이들은 우물을 팔때 石油가 안 나오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

리비아 정부는 GMRP공사를 國家의 최우선 事業으로 公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Green Tax를 賦課하고 있고 이 事業推進을 방해하는 자는 極刑에 처하므로 東亞建設側은 공사대금을 現物(石油)로 받는 것 이외에는 行政的으로 굉장히 편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導管製作工場을 건학했다. 철판을 용접하여 円筒型으로 만든 후 水壓test를 거쳐 그 주위에 鐵絲를 감은 다음 Concrete를 붓는다. 직경 4m, 길이 7.5m의 도관의 무게는 73t에 이른다. 제1차공사는 1,900km의 水路를 부설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25만 개의 Pipe中 우리가 갔을 때 14,000개를 끝냈고 1日 88개를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이것을 7m 깊이에 埋設하는 理由는 기후조건에 전하여 하는 문제도 있지만 Koran에서 豫言한 Paradise는, 지상의 풀밭에 羊과 소가 뛰놀고, 야자수가 울창한 땅에서는 生命水가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用水供給을 위해 270개의 우물을 팔 예정이나 지금까지는 245개의 우물을 팠다는 것이고 Pre-Cambrian時代에 생긴 이 물을 계속 퍼 내면 50년 정도 지탱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帶水地域이 여러 군데에 널려 있어 물이 마르면 판곳에 우물을 더 파겠다는 것이다. Egypt는, 물을 퍼 내면 生態界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日 100만으로 시작하다가 수요가 늘면 200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리비아는 대부분의 中東국가와 아프리카가 그렇듯 가장 필요한 것이 물 확보문제이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야 연 300~400mm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도 겨울철 한 때에만 내린다는 것이다.

1日 100만씩의 물을 끌어오면 1년에 3.6억이 된다. 그러나 50년이면 바닥이 난다. 한편 우리

나라는 남한에 만도 매년 1300억t의 비와 눈이 내린다. 특히 水路工事を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물이 공짜로 언제나 내리는 것이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땅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무한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

8. 리비아인의 관습, 宗教

리비아 사람은 전통적으로 部族單位로 무리지어 살아온 遊牧민족이다. 시골에는 아직도 고집센 家主가 4명의 아내와 수십명의 子女를 거느린 경우가 있어 얼듯 보면 집이 아니라 유치원 같다는 평을 듣기도 한다. 이번 여행에서 들은 최고기록 4명의 아내와 54명의 子女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안내인의 친구중에 27명의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적지 않아 인구증가율은 연 3%인데 이것은 이웃 Algeria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TV의 뉴스시간엔 大Arab연방국을 상징하는 22개의 中東 및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를 배경으로 하여 아나운서가 방송하고 있으며 그것이 끝나면 거의 매일 “위대한 지도자” 혹은 그의 참모가 열변을 토하는 강연도 방영했는데 청중은 학생이나 청년층이다. 현재 전 세계에 모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29개국이 되어 이들이 습하면 세계최강의 집단이 된다고 자랑하고 있다.

화폐단위는 Dinar로서 미화 \$3에 該當한다. 총각이 장가 가려면 장인될 사람에게 평균 10,000Dinar를 지불하나 미인이거나 대학졸업생이면 20,000Dinar를 호가하고 고등학교출신도 7,000Dinar이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 좋은 장인은 받은 돈 중의 일부를 남몰래 사위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하여간 장가 못한 총각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처녀가 婚期에 이르면 먼저 그녀의 四寸오빠에게 娶할 것인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처녀는 사촌오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남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게 된다.

1980년 전후 석유값이 비쌀 때의 1인당 GNP는 10,000~12,000\$이었으나 지금은 8,000\$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 비친백성들의 생활은 1,000\$

정도로 보였다. 한때는 자동차 대수가 급증하여 도로와 주차장 시설에 문제가 생겨 휘발유값을 파격적으로 올렸더니 그 이후엔 車가 늘어나지 않는다 한다. 현재의 휘발유값은 우리의 60%정도이다. 여자들이 운전하는 것도 가끔 보였다.

Saudi Arabia와 Iran에는 종교경찰이 거의 治外法權의 存在인 데 비해 Libya에는 그것이 있는것 같지 않고, 또 재판도 사우디에서 처럼 성직자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法官이 하기 때문에 엄중공정하다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한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7年 징역 정도 宣告받으며 외국인일 경우는 그 期間中에는 출국금지 된다. 단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기만 하면 풀려날 수 있다.

어떤 한국인 근로자가 Truck 운전하다가 리비아인을 치어 죽여 재판받게 되었다. 피해자의 제1부인이 가해자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2부인도 똑같이 말했다. 그러나 얼마전 결혼한 제3부인은 가해자를 죽여봐야 남편이 살아 나는것도 아니고 우리의 분함이 풀릴리도 없으니 차라리 그를 데리고 살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은 기혼자였다. 그래서 나중에 그의 부인을 데려다가 증언케 했고, 남편의 의견도 들었다. 그때 7年間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는 3여자를 거느리고 살면 풀려날 것을 感知한 그는 본처와의 이혼을 제의했다. 勿論 본부인은 안된다고 항의했지만 여기서는 韓國法 보다는 리비아法律이 우선이기 때문에 法庭에서 이혼이 宣告되었다. 남편은 부인에게 7만만 참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니 그때까지 참자고 타일렀으나, 본부인은 젊고 예쁜 제3부인과 살 생각으로 거짓말 한다고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7年間 살게되면 아이도 생길것이고 정도 들 것이니 그때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또 하나의 경우는 어느 사막의 마을을 차타고 지나가던 韓國人의 친절이다. 저녁 가까이 되어서 이웃 마을로 가던 어느 소녀를 태워주었는데 재수 없게도 그녀가 목적지에서 내릴 때 그 마을 村老들에게 들켰다. 뜻밖에도 소녀는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외치며 마을로 뛰어가, 韓國人은 영문도 모르고 체포되었다. 좁은 공간에서(낮모르

는) 異성과 오래 지내면 간통혐의를 받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백을 입증해 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다행히 그 친절한 한국인은, 신체검사를 받은 소녀가 숫 처녀라는 것이 밝혀져 억울한 누명을 벗고 석방되었다. 리비아에서는 남녀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여자에 대한 Credibility는 남자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 예를들어 남의 간통혐의를 고발할 경우, 남자라면 4명이 보았다고 하면 법정에서 채택되지만 여자는 8명이 고발해야 남자 4명의 몫과 같이 취급된다는 것이다.

“위대한 지도자”가 강연할 때는 청중의 좌석을 남녀별로 완전히 구분해서 배치한다. Elevator도 남자용, 여자용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建物에서라도 엘리베이터를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시골마을 근처에서 공사할때 Bulldozer와 Boring기 같은 것을 작동시키면 아이들이 몰려 드는 것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이때 할머니가 구경나왔다가 영감님에게 들키는 날이면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밝히고 매맞는다고 한다. 여자들이 얼굴에 검거나 흰 천을 씌우는 것은 종교적 신앙심의 척도라기 보다는 집안의 保守性을 나타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고 하였다. 빨간 모자(쿠트라)를 쓴 것은 Mecca에 Pilgrimage 갔다 온 것을 상징한다.

여자들은 크레오 파트라의 후예답게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사우디 아라비아나 이란에서 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태양열에

관한 연구논문도 여자 기술자가 발표할 정도였다.

이 나라는 Qathafi 執權 이후 Petro-dollar의 장학금으로 西歐大學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elite集團이 운영하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 수도 얼마 안되려니와 중간계층이 없는 것이 크나큰 문제고 또 60%에 이르는 文盲率, 지나치게 散在해 있는 人口分布 그리고 오랜 독재집권에 대한 실증이 점차 노골화하는 것이 심각한 것으로 보였다.

모슬렘의 종교규율에서도 平等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동차운전 기사는 우리가 식사대접 받을 때 언제나 同席하였고 비행기 Pilot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차를 Convoy 해주는 사람도 그랬다. 그런데도 상류층은 집에 bar가 있고 시원한 맥주와 고급 포도주, 기타 수입주류를 언제나 마시고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음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흡사하였다. Elite계층엔 머리 좋은 분이 많았고 서구 사회의 어디에 갔다봐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우수하였다. 그러나 이 나라엔 아직 social infra-structure가 구축되지 않아 선진국으로 비약하기란 요원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국가적 大工事が 너무 show-off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준비없이 무모하게 일을 추진한다. Misratah 제철소도 그렇고 大水路工事も 마찬가지다. 그렇게 많은 물을 끌어온대도 당장 그만한 물을 쓸 수용가가 없고 농사를 짓겠다 하나 농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변가에 건설한 담수화工場이 너무 커서 녹슨 것이 많다고 논문발표때 말하는 분도 있었다.

